

제 86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1년 8월 26일 하오 1시 5분
2. 폐 의 : 단기 4291년 8월 26일 하오 3시 50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부의장 정응표
임시의장 김상대
5. 출석의원 : 재적 16명 중 출석 12명
결석의원 명남철, 임석희, 천철수, 이정권 의원
6. 출석 공무원 : 시장 하동현, 교육감 박세문, 총무과장외 각과장,
사무장 정부섭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제 84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 제 85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 창평동우체국장의 주민
- 행정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

◆ 부의안건

- 단기 4291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8. 토의사항

- ◎ 제 84회 제 2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제 85회 제 1차 회의록 통과

◇서기 박 찬 대

- 낭독
- 이의 없음으로 통과

◎ 진정서 접수상황보고

창평동 우체국장외

◇서기 박찬대

- 보고

◇김 창 희 의원

- 소개 발언하다.

◇부의장 정 응 표

- 상임 위원회 회부선언하다.

◎ 목포시 의회 의장 선거의 건

◇부의장 정 응 표

- 의장단 개편의 의사진행이니 만큼 최고년장 의원인 김상대 의원과 사회 교채 선언하다.

- 김상대의원 임시 사회에 당함

◇정 응 표 의원

- 금차 회의의 의사일정에 의하면 의장선거만을 상정하였는데 본인의 부의 장 임기가 10월 25일까지라 하여 금반에 의장선거만을 하게되면 오는 10월

의 부의장 선거로 인한 분과 상등을 우려하여 그 선거도 금차 회기에 소급하여 병행토록 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김 창 희 의원

- 현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10월 25일까지 인증함을 조건부로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도 동시에 실시하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었다.

◇김 일 섭 의원

- 본 의원이 신병으로 인하여 금조(금일아침) 청가원을 제출한바 있었는데 좋아져서 출석하였다. 본 의원의 의회 출석 효력 여부여하

◇임시의장 김 상 대

- 청가원을 냈지만은 출석한 이상 그 청가는 각하될 것이다.

◇김 일 섭 의원

- 의사일정대로 금차 회의에서는 의장선거만을 실시할 것을 개의회였으나 재청이 없음으로 폐기되다.

- 김창희 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12명중 찬성 10표로 가결되다.

◇임시의장 김 상 대

- 감표위원으로 김성균, 김일섭, 박두순 의원을 지명하다.

- 의장선거 투표 결과

김삼성 의원 : 재석 12명중 12표 획득

◇임시의장 김 상 대

- 김삼성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 김일섭 의원 퇴장 (재석 11명)

- 부의장선거 투표 결과

강영락 의원 : 재석 11명중 10표 획득 기권 1표

◇임시의장 김 상 대

- 부의장에는 강영락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언하다. 이어서 김삼성, 강영락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었음.

- 의장단 선거가 끝났으므로 사회 교체를 선언하다.

- 정응표 부의장 사회에 당함

◇부의장 정 응 표

-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호선을 하기 위하여 5분간 휴회를 선언함.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2시 10분 현재)

- 각 상임위원장 호선 결과

- 내무위원장 : 박두순 의원

- 문사위원장 : 김상대 의원

- 산업위원장 : 김상태 의원

◎ 단기 429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

◇서기 박 찬 대

- 제안이유 설명하다.

◇김 창 희 의원

- 제반절차를 생략할 원안 무수정 통과동의에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행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

◇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

- 1) 특별판공비의 각과 배부여부문제는 특별판공비는 어디까지나 시장님을 위주로 하는데 외적 지불로서 주로 경조, 찬조, 축의금, 접대비등을 지출하는 것인바 각과는 과대로 예산내용에 비추어 지불하여도 좋을 과목을 택하여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 2) 동행정 운영에 대하여는 직원의 봉급도 본청 직원과 같이 그 달 그 달 지불하여왔으며 소모품 등도 수시 배부하여 왔으나 동장 무보수와 판공비 불지급 등으로 다소 지장이 있으나 이러한 점도에 질의 하였던바 중앙당국에 절충중이라니 신년도까지는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보아집니다.

◇재무과장 박 병 열 답변

- 저반 의회에서 지적하신 재무행정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 연 수 답변

- 월동용 연료타개책에 대하여는 국책의 하나로 앞으로 극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재고량등은 시민 수요량의 10개월분은 확보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 춘 흠 답변

- 1) 변방동의 수도증설문제는 죽교동 주민의 납세성적이 좋으나 근방 배수분관이 없고 수압이 낮은 관계로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 2) 역전 하수구의 구멍은 틀림없이 있으며 역전광장의 보수문제는 역장과 타합하여 자갈을 깔도록 하였습니다.

- 3) 해안동 도로보수와 검문검색소 옆 도로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4) 강대진 지물상 옆 도로하수구 준설도 일부 수선 하겠습니다.

- 5) 과내 인화문제는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하겠습니다.

◇하 시장 답변

- 1) 청원중에서 승진이나 부서교체를 피하여 의원제위를 괴롭히는 무리가 있다하니 미안하게 생각한다. 대개 이러한 무리는 현직에 충실치 못한 사람들의 소행일 것이니 그 즉시 설득시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저반의 광주지검 출장은 시장자격 이였으며 귀속재산 판매에 대한 증

인으로 출두하였든 것입니다.

◇교육청 정 사무장 답변

- 사무 인계 면에 부정이 개재 되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서류 내용의 불비한 점을 상세히 작성하느라고 그리된 것입니다. 전임 사무장이 귀가한 것 같으니 단시일 내 접수가 완료 될 것입니다.

◇박 교육감 답변

- 1) 유달학교에서 영화상영시 부상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주체가 천주교였고 교내 측에서 부상된 것이 아니고 후문 쪽에서 본인들의 부주의로 이러한 불상사를 낸 것 같습니다.

- 2) 청내인사문제는 앞으로 신상 필법주의로 하려합니다.

◇김 성 균 의원 질문

- 1) 역전하수구의 구멍은 있다하나 물이 안뺀는 실정이다.
- 2) 월동용 신탄 타개문제에 있어서 모든 통계를 정당히 파악하고 보고하여 시책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 3) 현재의 아궁이 개량된 수효를 파악하고 가일층 노력을 요망한다.
- 4) 교육청 인화문제에 대하여는 작년 12월말 시정감사 보고시에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그대로 방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것이다. 교육감은 과감한 영단을 세워주기 바란다.

◇김 남 진 의원

- 집행부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지양하고 시정에 쇄신을 기하여야 된다는 견지에서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주기 바란다.

1) 인사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지극히 애매한 것 이였으나 모집회 장소에서 모 계장이 어느 의원에게 승진운동을 하였다는 근거조차 말 안 하였다는 것은 감 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하 시장 흑자행정의 이면을 13만 시민에게 공개하여 공정한 비판을 받고자 한다.

3) 전반 군경 원호금 부정착복사건으로 직원 2인이 파면 당한 사건이 있으나 아직까지 변상조치를 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왕년 남교동시장 화재당시 시장 주인이었던 최씨는 인책사임한 바 있었는데 요사이 다시 기용하여 그부서에 근무하게 한 것은 인사행정의 모순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5) 수도료 징수사무를 재무과에 이관한 이면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6) 시유재산 일부를 수의 계약으로 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 여하

7) 일반소모품 비를 형식적인 경쟁입찰을 부하여 구입한 사실도 있다.

8) 현금 쇠퇴일로에 있는 동행정을 시찰하기 위하여 시장자신이 각 동을 순시한 실례가 있는가 알고싶다.

9) 우리 목포는 하나에도 상수도 둘도 상수도로서 소사(사소한일)에 대한 불평을 앓고 상수도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그만한 경비지출도 상수도 확장공사비에서 나가고 있는 사실을 폭로한다. 만약 확장공사비에서 지출 안 되면 각주무자의 호주머니나 직무상 부정으로 그 경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10) 2,3 년 전에는 영업세 징수 장려금 교부금을 시 간부가 착복하여 버리고 징수직원들은 골탕을 먹은 사실도 있다.

11) 그리고 상수도 확장공사에 크게 유감된 일로서 의결부의 정신과 집행부간에 상처된 일이있다. 휴관 구입에 있어 서울특별시는 경쟁입찰에 부하여 우리 목포시의 구입가격보다 1개당 10,000환의 차인 염가로 구입하였는데 당사는 무슨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하여 고가로 사드린 이유는 무엇인가

12) 또 휴관 구입계약당시 25,000환으로 계약하여 그 후 29,000환으로 추가 계약하고 갱히(다시) 32,000환으로 추가 계약한 것 등 이러한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유감된 일이다. 특히 91년 4월 18일에 추가계약한 것은 추경예산 승인은 6월 10일에 의결 되었는데 그 지불은 5월 16일에 기히 집행한 것 등은 모순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3) 대성병원 윗 쪽 주택부근에 오지거주인을 위하여 도로시설을 시장합의 하에 한바있었는데 시장은 나중에 와서 그 책임을 회피한 사실도 있다. 여하튼 하시장은 사사건건 사고만 생기면 그 책임을 무자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14) 회계주무자에 대한 청원간의 불평의 소리를 시장님은 아시는가

- 결론으로 형크러져 가고있는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장 교체 운동까지도 불사하겠으니 제의원의 협조를 바라는 바이다.

◇김 상 대 의원

- 과거 서부 국민학교까지는 물(식수)가 들어왔는데 해제식당 근방에서 수도전을 절단 사용한 관계로 단수 되었다 하니 이의 보구책을 긴급히 세워주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나주읍 의회에서는 상수도 용수할애문제로 읍장 불신임안과 읍민 쫓기대회까지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사도중 여사방해행동이 있을 경우의 타개책을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조 양 순 의원

- 교육위원회 부채 4백 만환의 내용을 명백히 밝혀주기 바란다.

◇강 영 락 의원

- 88년도에 거시적으로 국민 저축운동을 전개하여 실시하다가 중간에 좌절된 사실이 있는데 농업은행의 예치상황을 조사 하였던바 587구좌에 42만 환의 예입사실이 있는바 이렇게 밖에 안 되었는가 의아스럽다. 이의 세밀한 조사를 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오는 28일에 우체국 주최로 공전식 전화 개통식이 주최 되어 체신청장도 임석하리라 하는바 이 석상에서 당의회 명의로 이장관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증정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부의장 정 응 표

- 집행부 답변은 차기의회에서 보고토록 할 것을 선언하다.

- 폐회 선언하다.

(하오 3시 50분 현재)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1년 8월 30일

시의원 조 양 순

시의원 김 경 인

작성자 서기 주 도 식